

##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교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누가 2:12)

성탄절에 우리는 사람 얼굴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리나 이념이나 주의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실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양극화된 세상에서 사람 이야기가 그리운 때입니다. 우리가 좌 성향이든 우 성향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모두 엄마의 사랑스런 딸들이며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 이야기에는 주목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얼굴을 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교제와 사귀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 김지은 목사와 저는 미국에서 첫 선교보고(Interpretation Assignment)를 하며 동아시아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와 이념 넘어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기쁜 동아시아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이사야 2:4) 만들 때까지 계속 동아시아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동반자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